



만경강 유역 원삼국시대 문화 연속성과 지역 정치체

: 최근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Cultural Continuity and Regional Polity
in the Mangyeong River Basin during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 Based on Recent Settlement Excavation Data

김은정

대한문화재연구원 연구교수

I. 서론

II. 분석틀과 방법론

III. 문화적 연속성의 재발견

IV. 지역 공동체의 물질문화

V. 결론

국문 요약

만경강 유역은 원삼국시대 한반도 서남부 지역의 사회문화적 변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지역이다.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 축적된 대규모 발굴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① 기원 전후~기원후 2세기 '문화적 공백기'는 실재하지 않았다. ② 만경강 상류에는 독자적 지역 정치체가 존재했다.

그 결과 첫째,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의 출토 증가 및 점토부뚜막의 이른 등장을 통해 만경강 유역의 문화적 연속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구장경평저호의 집중적 분포와 대형 심발의 지역적 특수성 분석을 토대로, 만경강 상류에 독자적 문화 정체성을 가진 지역 정치체가 존재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문화 단절론에서 문화 연속성론으로의 관점 전환을 제시하며, 물질문화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지역 정치체 복원 방법론을 제안한다.

주제어 : 원삼국시대, 문화적 공백기, 지역 정치체, 취락, 경질무문토기, 만경강 유역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

만경강 유역 원삼국시대는 마한 사회의 융성과 더불어, 지역 문화의 독자성과 보편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기의 사회·문화상 복원을 위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기원 전후부터 2세기대까지 이른바 ‘문화적 공백기’는 발굴 자료의 단편성과 해석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전히 논쟁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시기의 한계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고고학 전체의 시대적 연속성 규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2. 연구 목적과 가설

최근 10여 년간 만경강 유역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구제발굴을 통해 방대한 신규 자료가 축적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 자료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만경강 유역 원삼국시대의 문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복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원 전후~2세기 ‘문화적 공백기’는 실제 문화적 단절이 아니라 고고학적 가시성의 문제였다. 둘째, 만경강 상류 지역에는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을 갖춘 지역 정치체가 존재했으며, 이는 물질문화의 분포 양상에 근거해 복원이 가능하다.

3. 연구 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주요 취락 자료를 대상으로 물질문화의 시공간적 분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은 최근 발굴된 전주 동산동 유적, 전주 여의동2가 유적 등 중·대형 취락 유적과 그 출토 유물이다.

토기 분석에서는 기존 분류와 명칭 사용이 지닌 연구사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용어 체계를 정립하여 자료 해석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형, 기벽 두께, 태토 조성, 소성도 등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용어 사용의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그 개념적 적합성을 새롭게 재정의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틀을 적용하여 최근 조사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만경강 유역 토기 문화의 지역적 특성과 시간적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분석틀과 방법론

1. 토기 분류체계와 용어 재정의

한국 고고학에서 ‘무문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경질무문토기’는 각기 상이한 연구사적 맥락에서 정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무문토기는 청동기시대,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초기철기시대, 경질무문토기는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군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구분에 기초한 분절적 접근은 세 토기 유형 사이의 계통적 관계와 기술적 연속성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세 토기군을 별도의 문화적 기원을 가진 독립적 유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예컨대,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원형점토대토기에서 형식 변화를 거쳐 발생하거나(이재현 2003; 박진일 2013), 외래 계통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박순발 1993, 2004, 2009) 해석되었다. 경질무문토기는 무문토기 전통에서 발전한 과도기적 토기로 이해되어왔다(김양옥 1976; 최병현 1998: 105~145; 최성락 1988:1~17).

최근 노혁진(2015), 오용제 외(2024: 245~270)의 연구는 이러한 기존 관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세 토기 유형이 서로 다른 문화 전통이 아닌 하나의 기술적 연속체 내에서 시간적 변이와 지역적 변동을 반영한 것임을 논증하였다. 이들은 태토의 조성과 처리, 성형 기법, 표면 처리 등에서 세 유형이 근본적인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을 세밀한 기술사 분석으로 밝혔다. 형태적 차이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술 발달과 각 지역의 선호도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문화적 단절이 아닌 연속적 변화의 흐름에서 이해하는 접근이 더욱 합리적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용어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하고자 한다.

무문토기는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 초기까지 지속된 한반도 재지 토기 제작 전통의 유형으로, 표면 무문양·점토띠 쌓기 기법·산화염 소성을 통한 갈색 또는 적갈색조·800~900℃의 비교적 낮은 소성온도(김준규·홍승연 2021: 176~182; Rice

1987; Shimada 1994)를 주요 속성으로 한다. 시기별로 태토의 조성이나 형태·크기에는 변화가 존재하나, 전반적인 제작 기술 체계는 일관적으로 유지된다.

삼각형점토대토기는 무문토기 전통 내에서 구연부 점토대 단면이 삼각형으로 변형된 특수 형태로, 원형점토대토기에서 변형된 형식으로 해석된다(박진일 2013). 이 유형은 구연부의 구조적 보강과 장식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 기술적 개선으로 볼 수 있으며, 제작 방식 또한 무문토기와 동일한 전통을 따른다. 따라서 삼각형점토대토기는 별도의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기존 무문토기 내에서 나타난 지역적·시기적 특수화 양상으로 인식된다.

경질무문토기는 만경강 유역에서 무문토기 제작 전통의 최말기 단계에 등장한 과도기적 토기군으로 재정의된다. 이 유형은 기술적 혼재성을 특징으로 하며, 점토띠 쌓기 및 종방향 기면 정면 기법이 지속되는 가운데, 타날문토기 제작 기법(특히 일부 개체에서 미약하게 나타나는 타날 흔적과 기벽의 점진적 얇아짐)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전체적인 기형은 기존 무문토기의 틀을 유지하나, 바닥부는 두꺼운 평저를 유지해 타날문토기와 구별된다. 시기적으로는 기원 전후에서 2세기 말·3세기 초반까지 제작·사용되며, 3세기 전·중반 이후에 타날문토기로 대체된다. 이러한 변화는 만경강 유역 토기 제작 전통이 외래 기술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과도기적 산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각 토기 개념을 재정의하되, 연구사적 소통을 위해 기존 용어는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토기 유형의 분류와 해석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자 한다. 한편 만경강 유역의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의 시간적 선후 또는 동시성에 관해서는 자료상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는 선후관계에 대한 판단 대신 각 토기 유형이 시기별로 나타내는 양상과 의미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유적 자료 분석에서는 제작 기법, 소성 조건, 형태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할 경우 기존 분류 방식과의 차이점도 명확히 언급할 것이다.

2. 지역 정치체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 ‘지역 정치체’란 일정한 공간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위계적 사회조직을 갖춘 고대 공동체 단위로 정의한다(Renfrew 1986). 이는 단순한

취락군의 집합이 아니라, 중심 취락을 정점으로 주변 취락들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통합된 실체를 의미한다.

만경강 유역에 독자적 지역 정치체가 존재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물질문화 분포 분석을 핵심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지역 정치체의 존재와 그 영역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방법이다(Earle 1987: 279~308).

첫째, 직구장경평저호와 같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수 토기류의 양상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 공동체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들 토기류의 분포 범위는 지역 정치체의 영역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둘째, 대형 심발 등 일상 토기에서 확인되는 지역적 특수성(크기, 제작 기법, 분포 양상 등)을 검토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 체계의 독립성을 설정한다. 셋째, 희소성이 높은 토기류의 사회적 기능과 분포 양상 분석을 통해 정치체 내부의 계층 분화와 권력 구조를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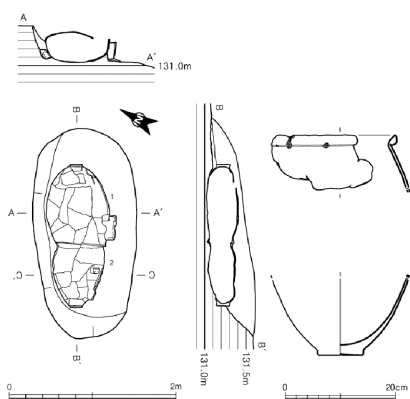
Ⅲ. 문화적 연속성의 재발견

1.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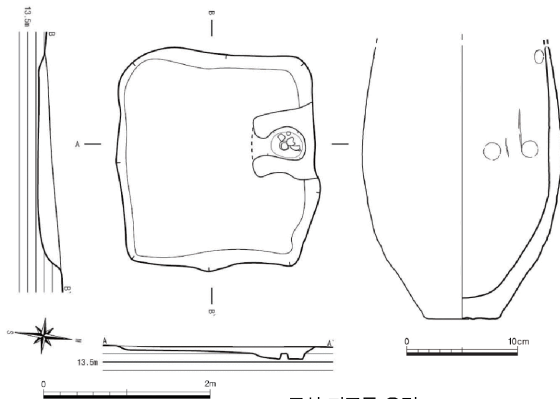
전북지역은 선사시대 이후 초기철기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치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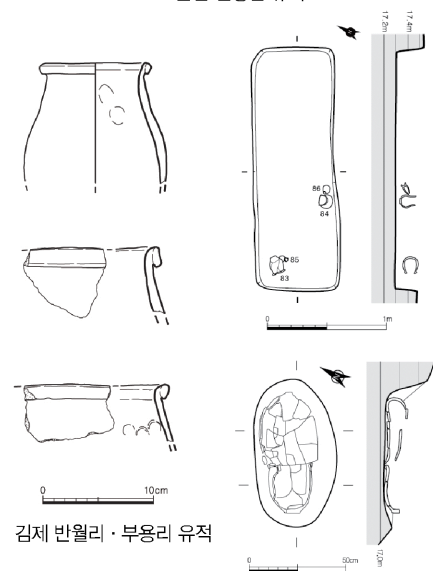
[그림 1] 전주 여의동2가 유적 출토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
(1, 263호 주거지 2, 308호 주거지 3, 115호 주거지 4, 163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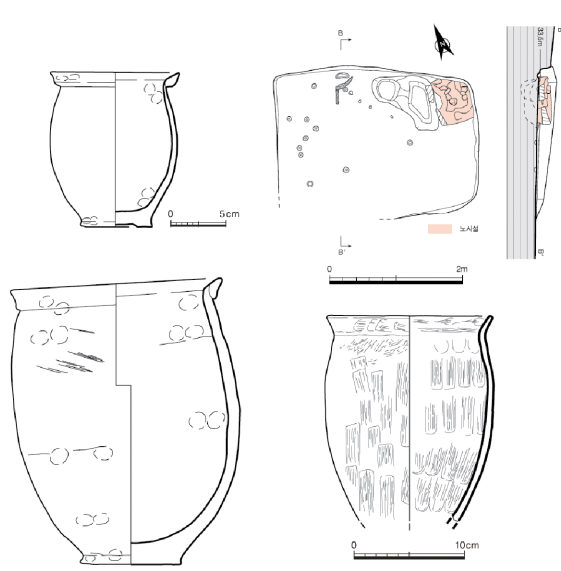
군산 경장산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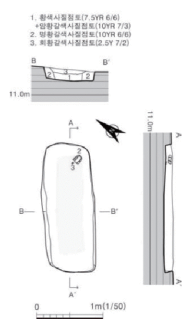
군산 지곡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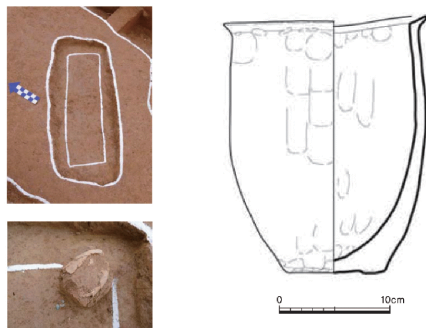
김제 반월리 · 부용리 유적



원주 둔산리 청동 유적



부안 공월리 유적



[그림 2] 전북 서부지역 삼국형점토대토기 · 경질무문토기 출토 현황

용성과 쇠퇴를 반복한 지역이다. 특히 원삼국시대의 만경강 유역은 마한 정치체의 주 활동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기원 전후경부터 기원후 2세기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타날기술로 제작된 토기가 출토되는 유적 역시 대부분 3세기 이후로 분류되어 시기별 유적 수에 현저한 비대칭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문화적 공백이 존재했다는 견해(김승옥 2004: 56~86)와, 지역적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편년 기준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견해(김장석·박지영 2020: 4~30)가 각각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전주 여의동2가 유적(대한문화재연구원 외 2024)과 동일 층적지 상에 위치한 일대 유적(전주 동산동, 동산동 쪽구름, 동산동 청동기시대 취락 유적)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가 다수 출토되고 있다(그림 1).

특히 전주 여의동2가 유적에서는 115호, 163호, 263호, 308호 주거지 등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가 공반 출토되어, 두 토기 유형 간의 시간적 연속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전북 서부지역의 군산, 김제, 부안, 완주 등지에서도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 출토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산 건장산 유적 Lc9호 옹관묘(삼각형점토대토기), 군산 지곡동 유적 22호 주거지(경질무문토기), 김제 반월리·부용리 유적 5구역 1호 수혈(삼각형점토대토기), 김제 서정동Ⅱ 유적 5호 토광묘·2호 옹관묘(삼각형점토대토기), 부안 궁월리 유적 8트렌치 토광묘(경질무문토기), 부안 원천리 유적 4호 수혈(삼각형점토대토기), 완주 둔산리 청동 유적 10호 주거지(경질무문토기) 등이 그에 해당한다(그림 2).

이들 유적 자료는 전북지역에서 ‘문화적 공백기’로 간주되어 온 시기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2. 취사시설 발달의 연속성

원삼국시대에 주거 내 취사시설로 등장한 부뚜막은 조리된 음식의 섭취를 가능하게 한 혁신적인 시설이었다. 만경강 유역을 비롯한 동시기 여러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여러 물질 자료-예를 들어 부뚜막과 연도(구들), 그리고 그 주변에 산재한 토기 및 식물 유체-는 부뚜막을 이용한 불 조리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김은정 2022: 5~40).

중부지방 마한의 방형계 주거지에서는 점토로 만든 ‘|’자형 외줄 구들(시흥 목감

동 유적 2호 주거지)이 2세기 중후반에 설치되었으며(송만영 2018: 5~47), 호남 서부지역에서는 직선형 부뚜막 ‘I’식 노지(나주 신도리 신평 유적 16호)가 3세기를 전후해 등장한다(이영철 2015).

특히 호남 서해안의 고창·부안 일대에서는 사주공식 방형계 주거지 내에 점토부뚜막과 단수 또는 복수의 솔받침이 결합된 취사시설이 3세기부터 설치되기 시작한다(오승환 2018). 또한 전북 만경강 및 동진강 유역의 취락 자료(부안 백산성 유적 7호 주거지, 전주 동산동 유적 128호 주거지)에서도 2세기 중반경부터 점토 부뚜막이 사용된 사례가 확인된다(김은정 2017b).

솔받침은 부뚜막의 연소부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조리 시 부뚜막에 걸린 솔의 바닥을 받치는 역할을 한다. 호남지역에서는 솔받침이 확인된 주거지가 수천여 곳에 달하며(김은정 2017a: 1~42), 이들은 석재 또는 토제로 제작되어 하나 혹은 복수의 석재+석재, 석재+토제, 토제+토제 조합을 보인다.

최근 전주 여의동2가 유적(132호, 168호)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이 이루어졌다(그림 3). 이곳에서 전주 동산동 128호 주거지 부뚜막의 솔받침과 유사한 형태의 경질무문토기 계열 솔받침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들 솔받침은 바닥과 기벽이 두껍고, 타날 흔적보다는 중방향 기면조정 흔적이 관찰된다. 이는 경질무문토기와 동일한 제작 기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점토부뚜막 사용 시점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중요한 재고를 요구한다. 즉, 점토부뚜막은 기존의 ‘타날문토기 단계(3세기)’라는 견해보다 이른, 무문토기 제작 전통의 최말기인 경질무문토기 제작 시기부터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를 사용한 솔받침

(1. 전주 동산동 유적 128호 2. 전주 여의동2가 유적 132호 경질무문토기 3. 전주 여의동2가 유적 168호 4. 전주 여의동2가 유적 89호 격자타날문토기)

3. 문화적 공백기 가설의 재검토

상기 분석 결과는 기원 전후~기원후 2세기 ‘문화적 공백기’가 실제로는 문화적 단절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의 출토 증가, 취사시설의 점진적 발전, 그리고 기술 연속성의 과학적 입증(오용제 외 연구결과 참고) 등은 모두 이 시기가 문화적 혁신과 발전의 시기였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무문토기 제작 전통에서 타날문토기 제작 전통으로 이행되는 문화적 전환기이자, 취사 기술의 발전 등 여러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된다. 따라서 ‘문화적 공백기’라는 명칭은 실제 문화 단절을 의미한다기보다, 고고학적 가시성이나 기존 편년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오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만경강 일대에서 무문토기 제작 전통의 최말기(경질무문토기 단계)에 이미 점토부뚜막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경질무문토기와 함께 타날문토기가 공반 출토되는 양상은, 타날문토기 도입 시점이 기존 인식(3세기대)보다 소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번 연구는 삼각형점토대토기 문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 여러 제작 전통이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북 서부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을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만경강 일대 취사 기술의 발전 역시 기존 편년보다 더 이른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고학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연속성과 기술적 발전은 단순한 기술 전승을 넘어,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지역 공동체의 실재를 시사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지역 공동체의 실재를 물질문화의 공간적 분포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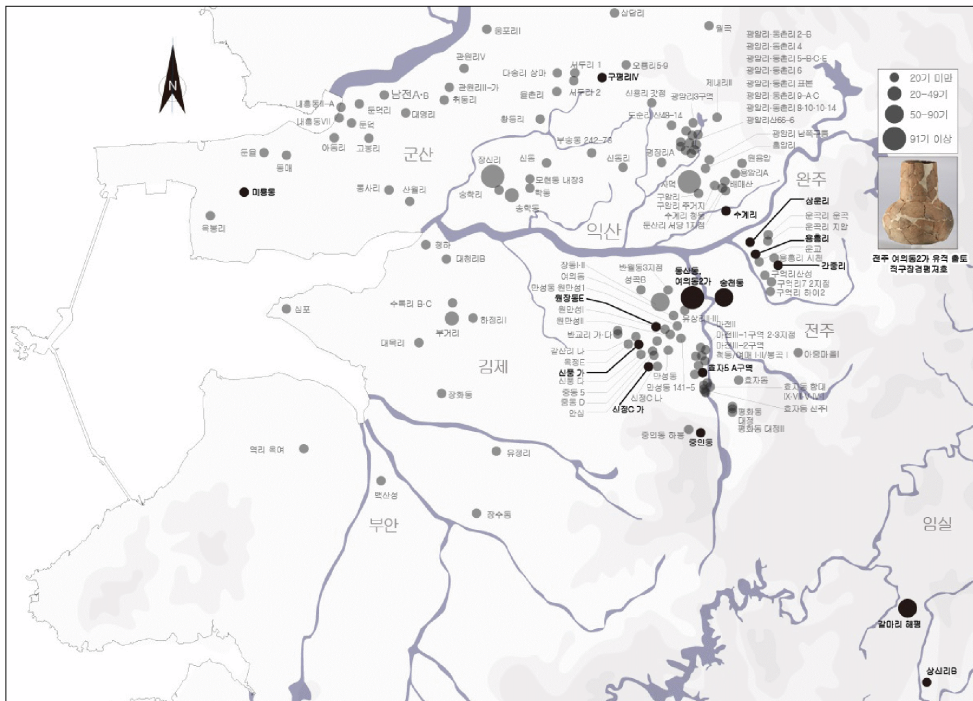
Ⅳ. 지역 공동체의 물질문화

앞 장에서 확인한 문화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만경강 유역에 독자적인 지역 정치체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물질문화의 공간적 분포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1. 직구장경평저호를 통해 본 지역 정체성

최근 전주 동산동 유적과 여의동2가 유적의 발굴을 통해, 직구장경평저호의 완전한 형태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 단편적 파편 상태로만 출토되어, ‘호’, ‘장경호’, ‘구연부편’ 등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발굴 성과로 전체 기형의 복원이 가능해졌다.

직구장경평저호는 초기철기시대 흑색마연토기, 원삼국시대 이후 분묘에서 발견되는 경질소성 장경호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직선에 가까운 경부와 구연부, 평평한 바닥, 반구형에 가까운 동체 등은 기존 토기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현존 확인 개체는 약 30여 점으로, 주로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지만(그림 4), 완주 상운리, 군산 미룡동, 완주 수계리 유적 등의 무덤에서도 점차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



[그림 4] 직구장경평저호의 분포(● : 출토유적, 김은정 2024b 재편집)

고창 왕촌리 유적 7호 토광묘, 고창 예지리 유적 11호 토광묘 등지에서도 유사한 평저호가 확인되지만, 이들은 바닥 직경이 6cm 내외로 만경강 유역 출토품(13~22cm)과 크기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 같은 기종으로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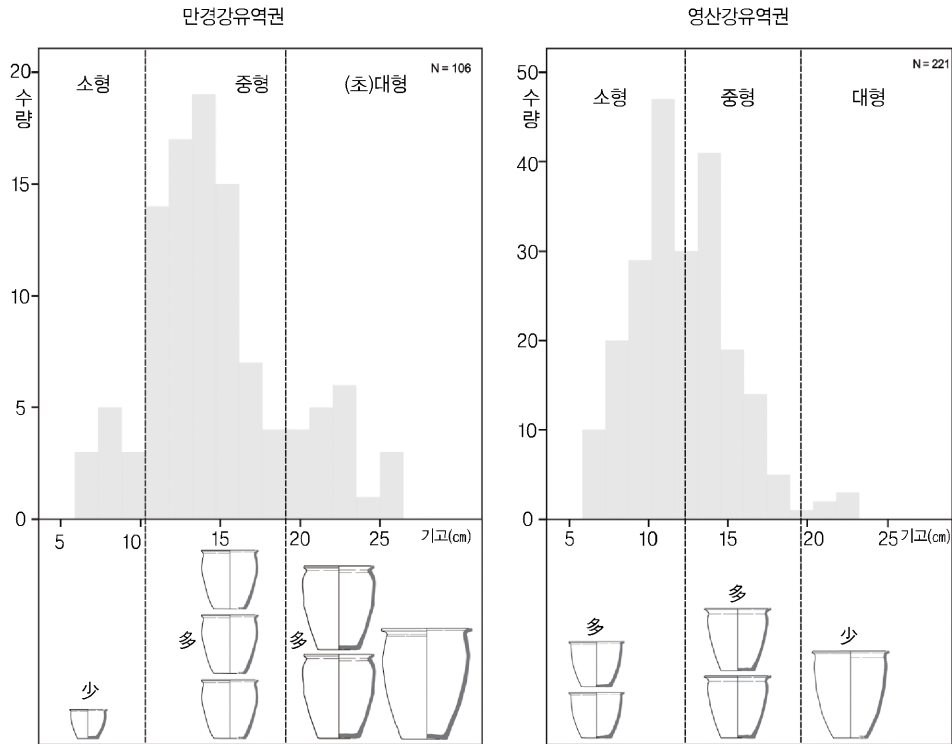
형태 분석 결과, 직구장경평저호는 경부가 동체보다 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동체와 경부 길이 비는 1:0.5~0.7에서 1:1.25~1.5 범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은 초기철기 흑색마연토기 계통과의 연관 가능성(서현주 2021: 800~819)도 제기된다. 동체는 중하위가 볼록한 반구형에 평평한 바닥을 가지고, 일부 견부에는 원형 돌기가 부착되어 있다. 문양은 거의 없으나, 일부에서는 격자 타날 흔적이 미약하게 확인된다. 대부분 연질 소성이지만, 경질 소성품도 일부 존재한다.

분포 양상은 만경강 상류의 완주·전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출토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 토기가 단순 취사·식기가 아니라 높은 상징적·사회적 가치를 지닌 희소품이었음을 시사한다. 만경강 상류 이외 지역(임실 상신리B·갈마리 해평 유적, 익산 구평리Ⅳ 유적,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서도 소수 개체가 발견되지만, 이는 만경강 상류 정치체가 인접 정치체와의 교류·동맹·위신제 분배 등의 관계 구축 과정에서 활용된 예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일부 예외 출토를 제외하면, 직구장경평저호는 만경강 상류의 전주·완주 정치체 내에서만 공유·통제된 특수 물품으로, 그 분포 범위는 정치체(또는 지역 공동체)의 영역 추정에 활용될 수 있다.

직구장경평저호의 정확한 기능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액체류 제례용기 또는 매장 의례 후 공헌 대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김은정 2017b; 서현주 2016). 이 유물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바로 그 희소성에 있다. 금동관, 금동신발 등 삼국시대 중앙권력에 의한 하사품과 달리, 생산 자체가 의도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치체 내 특정 계층만이 이를 소유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이 지역 공동체의 독자적 정체성과 위계적 사회 구조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2. 대형 심발의 지역적 특수성

지역 정치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또 다른 주요 물질자료로는 대형 심발의 지역적 분포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발은 원삼국~삼국시대 유적에서 폭넓게 출토되는 대표적 토기 기종이지만, 호남지역에서는 그간 형태와 문양 등에서 두드러진 지역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림 5] 심발의 기고 분포(김은정 2024b 재인용)

그러나 최근 만경강 유역 출토 심발의 정량적 분석 결과(김은정 2018: 144~146, 2024b: 37~69)에 따르면 중요한 지역적 차별성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호남지역 심발은 일반적으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유형화되는데, 특히 만경강 상류의 전주·완주 지역에서는 대형 심발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출토되며, 기고 25cm 이상의 초대형 급 심발이 다수 확인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영산강 유역에서는 소형·중형 심발이 대부분이고, 대형 심발은 매우 드물게 출토되어 만경강 유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그림 5).

이 같은 지역별 심발 크기의 차이는 토기 생산 및 유통 체계가 각 세부 지역권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시사한다(김은정 2018: 144~146; 이지영 2021). 특히 초대형 심발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현상은 해당 토기가 특정 문화권(만경강 상류 지역) 내에서만 생산·유통되었음을 강하게 암시하며, 이는 그 지역 내에 독자적인 정치체가 실재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 물질문화를 통해 본 지역 정치체

물질문화의 분포 분석 결과, 만경강 상류 지역에는 독자적인 지역 정치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예컨대, 직구장경평저호의 집중적인 출토와 대형 심발의 지역적 특수성은 모두 이 지역이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춘 독립적 정치 단위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취락군의 집합을 넘어서는, 조직화된 지역 공동체의 실재를 강하게 시사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직구장경평저호는 집중 분포와 기종적 특수성에 근거해 지역 정치체의 상징물로 기능하며, 정치적 영역 추정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초 대형 심발의 집중 분포 역시 해당 지역 정치체의 존재와 영향권을 입증하는 주요 물질문화적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지역 정치체의 실체와 영역을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이 같은 결론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우선, 직구장경평저호와 대형 심발 등 대표 토기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직구장경평저호는 제례용 또는 위세품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용도와 사회적 의미에 대한 심층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토기의 생산지와 유통망에 대한 과학적 분석도 필수적이다. 생산지 추정과 유통 경로 복원을 위해 태토·성분 분석 등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며, 육안 관찰을 넘어서는 정량적 분석과 심층적 해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접 지역 정치체와의 관계 양상에 대한 연구의 심화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직구장경평저호가 소량 출토된 임실, 익산, 군산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단순한 정치적 교류, 경제적 교역, 또는 영향권 확장 중 어떠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만경강 유역의 최신 발굴 자료를 기반으로 원삼국시대 문화 양상을 검토하고, 두 가지 주요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기원 전후~기원후 2세기의 ‘문화적 공백기’가 실제로는 문화적 단절이 아니라 고고학적 가시성의 문제였다는 가설은 충분한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전주 여의동 2가 유적 등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의 출토가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무문토기에서 타날문토기로 이어지는 기술적 연속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점토부뚜막의 등장 시기가 기존 편년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이 시기가 문화적 전환기이자 사회적 발전기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둘째, 만경강 상류에 독자적 지역 정치체가 존재했다는 가설 역시 상당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 직구장경평저호의 집중 분포, 대형 심발의 지역 특수성 등은 이 지역에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조직화된 지역 공동체가 실재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물질문화의 분포 양상은 단순 취락군을 넘어선 정치적 통합체의 존재를 방증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화 단절론에서 문화 연속성론으로의 관점 전환을 제시하며, 물질문화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지역 정치체 복원을 시도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절대연대 측정 자료의 부족, 고분 자료와의 통합 분석 한계, 인접 지역과의 비교 연구 미비 등 한계를 내포한다.

향후에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통한 정밀 편년 구축, 자연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생산지 및 유통망 복원, 한반도 서남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비교연구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4~5세기 마한에서 백제로의 전환 과정—취사시설의 변화, 철기 생산체계의 발전, 위세경제를 통한 권력 집중화 등—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만경강 유역에 대한 고고학 연구는 한반도 서남부 지역 고대사의 실상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동시에 고대 지역사의 다양성과 문화 변화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발굴과 다각적 연구를 통해 이 지역의 사회문화적 양상이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25. 5. 1 | 심사완료일 2025. 9. 18 | 게재확정일 2025. 10. 1

- 국립청주박물관, 2022, 『위대한 지혜 아금』.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17, 『김제 반월리 · 부용리 유적』.
- 김낙중, 2023, 「전북지역 마한문화의 전개 양상」, 『마한문화의 이해』,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김승욱, 2004, 「全北地域 1~7世紀 聚落의 分布와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44.
- _____, 2011, 「중서부지역 마한계 분묘의 인식과 시공간적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71,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22, 「전북지역 3~6세기 마한 취락의 특징과 변화과정」, 『전북지역 마한 문화 발전기편-주거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_____, 2023, 「마한고고학의 몇 가지 쟁점과 단상」, 『마한문화의 이해』,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김양옥, 1976, 「한반도 철기시대토기의 연구」, 『백산학보』 20.
- 김은정, 2017a, 「마한 주거 구조의 지역성: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24, 중앙문화재연구원.
- _____, 2017b, 「湖南地域의 馬輪土器」,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8, 「마한 일상용기의 지역성」,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 _____, 2022,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주거지의 취사 공간 연구」, 『아와고고학』 44, 한국문화유산협회.
- _____, 2024a, 「호남 서부지역 마한 취락의 성장 배경 검토」, 『호남고고학보』 77, 호남고고학회.
- _____, 2024b, 「만경강 상류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출토 토기의 특징과 지역성」, 『선사와 고대』 75, 한국고대학회.
- 김장석·박지영, 2020, 「호남지역 원삼국시대 편년과 지역성」, 『호남고고학보』 66, 호남고고학회.
- 김준규·홍승연, 2021, 「토기의 조성 온도와 화학성분 조성 검토」,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45, 한국고고학회.
- 노중국, 2018, 「문헌사에서 본 마한 연구동향」, 『마한 고고학개론』, 진인진.
- 노혁진, 2015, 「경질무문토기의 개념과 계통에 대한 一考」, 『백산학보』 102, 백산학회.
- 대한문화재연구원·성림문화재연구원·세종문화재연구원·중앙문화재연구원·동북아시아지역연구소, 2024,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박경신, 2021, 「안성천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마한 세력의 동향」, 『고고학』 20-3, 중부고고학회.
- 박순발, 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對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3,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_____, 2004, 「요령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정착 과정」, 『금강고고』 창간호.
- _____, 2009, 「硬質無文土器의 變遷과 江陵 草堂洞遺蹟의 時間的 位置」, 『강릉 초당동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박진일, 2013,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현주, 2016, 「馬韓土器의 地域性과 그 意味」, 『동북아시아에서 본 마한토기』 마한연구원 총서 4, 학연문화사.
- _____, 2021, 「전북지역 분묘 출토 마한 토기의 변천과 특징」, 『전북지역 마한문화~발전기편_고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송만영, 2013, 「중도식 주거 문화권의 주거지와 취락」, 『송실사학』 31, 송실사학회.
- _____, 2018, 「중도식 외줄구들 다원기원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앙고고연구』 26, 중앙문화재연구원.
- 오승환, 2018, 「구들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용제·올즈마야르·권오영·이재용·김장석, 2024, 「토기의 지구화학 성분분석과 고고학 ~ 한국청동기시대 무문토기와 원삼국시대 경질무문토기의 pXRF 분석」, 『건지인문학』 41.

- 이영철, 2015, 「영산강유역 고대 취락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현, 2003, 「江原地域 粘土帶土器文化 研究」,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2021, 「榮山江流域 三國時代 土器의 生産과 流通 研究」,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김제 서정동Ⅱ 유적』.
- _____, 2017, 『완주 둔산리 청동유적』.
- _____, 2021, 『부안 궁월리유적』.
- 전북문화재연구원, 2017, 『부안 원천리유적』.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군산 건장산유적』.
- 최병현, 1998, 「원삼국토기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고학보』 38, 한국고고학회.
- 최성락, 1988, 「원삼국기 토기의 변천과 문제점」, 『영남고고학』 5, 영남고고학회.
- 해원문화재연구원, 2023, 『군산 지곡동유적』.
- Earle, Timothy. 1987. Chiefdoms in Archaeological and Ethnohistor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6.
- Renfrew, Colin & John F. Cherry (eds.), 1986. *Peer Polity Interaction and Socio-politic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e, Prudence M. 1987. *Pottery Analysis: A Sourceboo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imada, Izumi. 1994. *Andean Ceramic Production and Us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Cultural Continuity and Regional Polity in the Mangyeong River Basin during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 Based on Recent Settlement Excavation Data

Kim, Eun-Jung (Research Professor, Daeha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e Mangyeong River basin is a key region for understanding the sociocultural dynamics of southwestern Korea during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Based on large-scale excavation data accumulated over the past decade, this study empirically tests two hypotheses: ① the so-called "cultural hiatus" from around the turn of the era to the 2nd century CE did not exist, and ② an independent regional polity with distinctive cultural identity existed in the upper Mangyeong River basin.

First, through the increasing discoveries of Triangular Clay-Rimmed Pottery and Hard Plain Pottery, as well as the early appearance of clay stoves, this study confirms cultural continuity in the Mangyeong River basin. Second, based on analysis of the concentrated distribution of Jikgu Jang-gyeong Pyeongjeo-ho (straight-rim long-neck flat-bottom jars) and regional distinctiveness of large-sized bowls, this study identifies the existence of a regional polity with independent cultural identity in the upper Mangyeong River area.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proposes a paradigm shift from cultural discontinuity theory to cultural continuity theory, and suggests a methodology for reconstructing regional politie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of material culture distribution.

Key words : Proto-Three Kingdoms Period, Cultural Hiatus, Regional Polity, Settlement, Hard Plain Pottery, Mangyeong River Basin